

2025 당뇨병학연구재단 연차보고서

KOREAN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ANNUAL REPORT 2025



(재)당뇨병학연구재단
Korean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CONTENTS

설원학술상 · 02p

Young Investigator Award · 05p

연구비 · 08p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행사 · 10p

- 모범당뇨인상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 · 15p

- 위풍당당 6.5km 걷기 대회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 19p

-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디지털 헬스케어 for 당뇨 프로젝트 · 26p

후원자 인터뷰 · 28p

달력 일러스트 작가 인터뷰 · 34p

함께한 변화 · 36p

재단의 마스코트 '당당이'를 소개합니다! · 38p

기부 현황 · 40p

기부참여 방법 · 43p

기부 약정서 · 44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제13대 이사장 차봉수입니다.

2006년 8월 설립된 본 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당뇨병 관련 학술·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국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세계당뇨병의 날 행사 지원을 비롯해 당뇨병 예방 캠페인과 환자 대상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6.5km 걷기 캠페인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과 모금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당뇨병학회의 주요 행사인 춘계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KDA Scientific Meeting: ICDM)에서 재단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캠페인 참여와 기부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 당뇨인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희망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재단은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과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부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푸른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장 **차봉수**



설원학술상 상금 2,000만원

대한당뇨병학회 초대회장 故 김응진 교수께서 당뇨병학 분야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2천만 원을 기부하신 것을 계기로, 교수님의 아호를 따서 1986년 '설원연구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설원학술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사업 주체를 학회에서 재단으로 이관하여 재단 주관 학술상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뇨병학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 1인을 선정하여 연구 활동 지원금과 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7회 설원학술상 수상자

최경묵(고려의대)

대표논문

Prevalence and determinant factors of sarcopenia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the Korean Sarcopenic Obesity Study (KSOS) (Diabetes Care, 2010.7)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려의대 내분비내과 교수 최경묵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여러 위원회에서 이사, 간사 및 위원을 맡아 당뇨병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2022-2023 간행위원회 이사로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의 투고, 리뷰 및 편집 시스템 개선, editorial board 개편과 DMJ international publication award 신설 등을 통한 신진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하여 DMJ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원학술상을 수상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먼저 설원학술상을 제정하여 주신 김응진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며 학회, (재)당뇨병학연구재단, 학회의 모든 회원님들, 특히 전, 현직 이사장님,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위원회 이사로 일할 때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에 같이 참여하여 주신 국내외 공동연구자 교수님들과 교실원들, 은사이신 최동섭, 백세현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원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들에 대한 보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표논문의 연구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저는 특별히 노령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가 당뇨병과 심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고 먼저 복부지방의 증가가 신체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게 되어 아디포카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동물 실험과 임상, 역학 연구를 병행하면서 헤파토카인과 지방간, 마이오카인과 근감소증으로 연구가 발전되어 Korean Sarcopenic Obesity Study (KSOS)라는 근감소증 연구의 선도적인 코호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본 논문을 통하여 2형당뇨병에 미치는 근감소증의 연관과 관련 인자 및 영향을 보고하여 향후 근감소증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십년간 당뇨병 연구를 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 또는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소개해주세요.

전임의로 발령받고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공간, 연구비, 함께 할 연구원 등 연구기반이 모두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막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해외 SCI 의학학술지에 논문이 처음으로 출판이 되었을 때와 국책 연구비에 선정이 되었을 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재)당뇨병학연구재단과의 인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당뇨병에 관련된 학술과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귀중한 일을 담당하여 학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일할 때 늘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비, 국제학술대회 지원과 캠페인, 대국민 홍보 등 중요한 사업들이 더욱 지속,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당뇨병 연구를 하는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가 처음에는 성과를 얻기도 어렵고 연구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엇보다 본인이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 연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구에도 선순환이 있어서 좋은 의학학술지에 출판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연구비를 받고 다른 연구자들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한단계 발전된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파는 연구가 중요하며 그 연구에서 출발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연구경쟁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Young Investigator Award



Young Investigator Award 상금 1,000만원



당뇨병학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2005년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은 만 45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구 업적을 심사하여 매년 1인을 선정하고, 연구 활동 지원금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업적 평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책임저자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진행합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의 대표 학술지인 DMJ(Diabetes & Metabolism Journal)에 책임저자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21회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자
김경수(차의과학대)



대표논문

Association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with cardiovascular disease and all cause death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nationwide population based study (BMJ, 2024.2.13)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김경수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23년 2월부터는 1년간 전세계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당뇨병, 인슐린저항성, 지방간질환, 임신당뇨병, 지질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내분비내과로 진로를 정하고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젊은 연구자로서 가장 받고 싶었던 상인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회를 주신 (재)당뇨병학연구재단과 대한당뇨병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상을 축하해 주신 많은 선배, 동료, 후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저보다도 더 기뻐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내분비학으로 이끌어 주시고, 학위 논문도 지도해 주셨으며 늘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조용욱 교수님, 지금은 다른 병원에 계시지만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박석원 교수님,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구적인 것뿐 아니라 병원 일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든든한 베팀목이 되어 주시는 김수경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와 함께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최고의 연구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바쁜 학회활동 중에도 연구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박철영 교수님, 여러 문제에 대해 늘 함께 고민해주시는 사려 깊은 홍상모 교수님,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중 한 분이신 한경도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활동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제게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논문의 연구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비알코올지방간질환(NAFLD)과 2형당뇨병(T2DM) 환자의 심혈관질환(CVD) 및 사망 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779만명 대상, 8.13년 추적관찰함). 연구 결과 2형당뇨병 환자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당뇨병이 없고, 지방간질환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경도 지방간질환 환자군 3.8배 ▲중등도 지방간질환 환자군 4.5배 더 높았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 역시 2형당뇨병 환자군에서 당뇨병이 없고, 지방간질환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경도 지방간질환 환자군 3.4배 ▲중등도 지방간질환 환자군 4.7배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던 2형당뇨병 환자에서 비알코올지방간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및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대규모 역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치로 입증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형당뇨병이 있다면 정기적인 간 검진으로 지방간질환 유무를 파악하고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지방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학 분야 중 당뇨병 연구/진료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혹은 이유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학생과 전공의 과정을 거치며 공부했던 분야 중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은사님들은 학문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본받을 점이 많은 분들이셔서 저 또한 자연스럽게 내분비내과를 선택하고 당뇨병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환자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관리해 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구자/당뇨병전문의가 되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세요.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관련된 질환 또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분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전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탐구에 정진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연구자이자 의사로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2억6,500만원

당뇨병학 연구와 환자 치료의 발전을 위해
매년 우수한 연구과제 10편 내외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연구



전자영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지방간염 동물 모델에서 Single Cell Sequencing을
통한 HDAC11 선택적 타겟 유전자 발굴 및 지방간염 치료 연구
연구비 ₩50,000,000



최연경 경북의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PPAR δ 를 매개로 한 Ferroptosis 표적 혈관 석회화 치료 전략
연구비 ₩30,000,000



김일영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분자의학

당뇨 치료제 (SGLT2 억제제 등) 처치에 따른 근위축의
대사플러스 기반 기전 연구: 식이필수 아미노산의 근육량
보존효과 검증
연구비 ₩30,000,000

임상연구



최훈지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임신중당뇨병 산모의 혈당 및 대사 건강 개선을 위한 CGM 기반
연구 및 관리 모델 개발
연구비 ₩50,000,000

3

임상연구



조윤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속 혈당 모니터링(CGM)과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정밀 대사 아형 분류: 한국인 대상 전향 연구
연구비 ₩30,000,000



윤수진 경희의대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전자의무기록 연동형 통합 CGM 시스템을 이용한 중환자실
환자 혈당 관리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연구비 ₩30,000,000



유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암 생존자에서 당뇨병 상태에 따른 사망률 및 당뇨 약제에 따른
예후 분석
연구비 ₩20,000,000



서다혜 인하의대
인하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 진단 나이에 따른 말기 신장 질환 및 사망률 위험도
연구비 ₩20,000,000



차은석 충남대학교 간호학

당뇨병 교육 및 지원 역량 함양을 위한 보건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증연구
연구비 ₩5,000,000

교육연구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행사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은 세계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1991년 제정한 날로, 매년 11월 14일 전 세계가 당뇨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일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92년부터 이 날이 포함된 한 주를 '당뇨병주간'으로 선포하여 국민 건강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6년 재단 설립 후에는 시민 건강강좌, 푸른빛 점등식 등 참여형 행사를 통해 당뇨병 이해와 예방을 넓리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행사 및 푸른빛 점등식은 대한당뇨병학회와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이 함께 주최하고, 노보노디스크와 베링거인겔하임의 후원으로 11월 11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모범당뇨인상,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올해의 당뇨병교육자상 등을 시상하며 환자, 의료진, 기업, 유관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당뇨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며,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분들을 '모범당뇨인'으로 선정합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긴 세월 동안 자신만의 생활습관과 치료를 성실히 지켜온 분들로, 그 경험과 노력은 많은 당뇨병환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올해 8번째로 진행된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7인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합니다.

당뇨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의 주체가 되기로 했어요

길윤아 제8회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물 한 잔이 그렇게 간절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밤마다 목이 말라 깨어나고, 하루 종일 물만 찾던 겨울,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혈당은 280mg/dL, 당화혈색소는 12%를 넘었습니다. 19살에 받은 '1형당뇨병' 진단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케톤산증 위험'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인슐린과 혈당을 공부하며 AndroidAPS 시스템을 직접 설정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당화혈색소 5%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는 시련이었지만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감사와 공감,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힘들어도 살아봐요. 세상은 생각보다 살 만하니까요." 오늘의 내가, 19살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고관표 교수 제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 주치의
1형당뇨병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당뇨병 발병을 그저 시련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동력으로 바꾼 진정한 모범 환자입니다.

70세에도 늦지 않았다, 건강 리더로 거듭나다

안영태 제8회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저는 올해 70세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처음에는 약만 잘 챙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4개월 전 당화혈색소가 7.9%로 나오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환 교수님을 만나 약을 조정받고, “당뇨는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함께 바꿔봅시다”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동구 고혈압·당뇨병센터의 영양 상담과 실생활 교육, 정기적인 피드백 덕분에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9%로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노력과 교수님의 지도, 센터의 격려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뇨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동반자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당뇨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 주치의
자기 주도적 관리와 지역과 상급 의료기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자조모임에서 건강리더로 활동하는 등 다른 환자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꾸준함이 만들어낸 건강의 시간

이창희 제8회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1984년,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갈증과 잦은 소변으로 병원을 찾았고, 1형당뇨병 진단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스크림 한 조각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헌신과 의료진의 도움 덕분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와 청년기에도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식사와 운동을 관리한 덕분에 지금은 세 아이의 아빠로서 공무원 생활과 등산, 골프, 축구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41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꾸준한 관리가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을 가능하게 했음을 느끼며, 어린 환우들에게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뇨병과 함께한 제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곽수현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 주치의
41년간 철저한 자기관리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함과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혈당과 동행하며 100세까지

이문희 제8회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20년 전,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30대 후반에 이유 없는 갈증과 허기를 느꼈습니다. 토마토와 고구마를 먹어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고, 소변도 잦아 병원을 찾았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약 복용과 식이조절, 운동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1형당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혈당 쇼크를 여러 차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속혈당측정기 리브레를 사용하며 저혈당 문제가 개선되고, 꾸준한 관리 덕분에 교수님께서도 혈당이 잘 유지된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뇨는 두려워할 병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몸의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탄수화물 조절과 규칙적 식사, 단 음식 자제 등 기본 관리로 건강을 지키며 100세까지 살아갈 다짐을 합니다.



이다영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 주치의
당뇨병을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식사와 규칙적 생활, 성실한 자기관리로 주변 환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모습이 모든 당뇨병환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좌절을 딛고 만든 나만의 건강습관

정동민 제8회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2016년 10월, 35세에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로와 갈증, 잦은 소변이 시작되었지만 단순 피로라 여기다가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당화혈색소 15.8%라는 높은 수치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김부경 교수님을 믿고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며 식습관과 운동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와 생선을 늘리고, 단산음료를 끊고, 규칙적인 근력·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적정 체중과 안정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며, 건강의 소중함과 규칙적인 생활의 힘을 깊이 느낍니다. 젊다고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관리와 관심을 시작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김부경 교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내분비내과 | 주치의
10년간 성실히 약을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해온 모범 환자입니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성실함으로 젊은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환자입니다.

50년 당뇨병 여정, 작은 습관과 가족의 지지로 지켜낸 건강한 삶

정승자 제8회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30대 초반, 첫째 아이 출산 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병인지 몰라 부정하고 힘들었지만, 혈액검사 수치를 직접 보고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철영 교수님과 함께 식사와 운동의 중요성을 배우며 생활습관을 다졌고, 젊은 시절 매주 등산을 10년간 꾸준히 하며 몸에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금 82세가 되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정거장 전에 내려 걸으며, 집에서도 걷기를 위해 일부러 한의원에 나가는 등 꾸준히 움직입니다. 이런 노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가족의 지지와 함께 건강을 향한 작은 실천들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함께해야 하는 친구지만, 관심과 습관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박철영 교수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 주치의

48년간 꾸준한 자기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 자기혈당 측정을 철저히 수행하며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



인슐린 주사와 함께 자란 나, 당뇨와 도전의 세월

정현선 제8회 모범당뇨인상 수상자



고1 때 당뇨흔수로 쓰러진 순간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혈당을 관리해야 했지만, 어린 마음에 주사와 채혈이 무섭고 힘들었고, 부모님께서 보내신 사랑과 걱정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지내며 혼자 감내했던 시간 속에서 저는 작은 성취와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제과제빵 자격증 도전, 현재의 여성복기능사 시험 준비까지, 당뇨는 제게 제약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살아 있음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혈당을 조절하고 움직이며, 하고 싶은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강은석 교수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 주치의

38년 동안 1형당뇨병과 함께하며 신장 합병증, 혈액투석, 췌장이식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늘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삶 절반 이상을 함께 해온 당뇨병과 함께 앞으로 이식으로 인한 면역억제제 치료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모범당뇨인으로 추천합니다

국민 건강과 기부가 함께하는 걷기 프로젝트

(재)당뇨병학재단과 대한당뇨병학회, 동아쏘시오그룹이 함께하는 '6.5km 걷기 캠페인'이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당뇨병 환자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꾸준히 걷는 즐거움과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환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일반인 누구나 모바일 걷기 앱만 있으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건강을 지키고, 작은 습관의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올해의 캠페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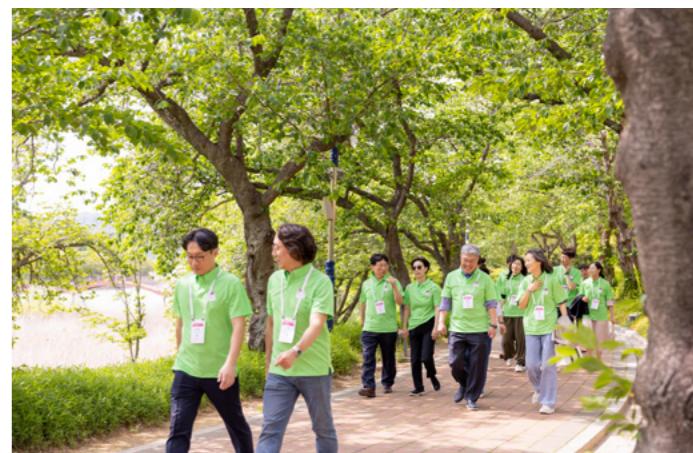
- **기간** 총 61일 (봄: 5월 1일 ~ 30일 / 가을: 9월 1일 ~ 30일)
- **참여자** 총 47296명 (봄 26,088 명 / 가을 21,208 명)
- **기부 걸음수** 총 12,542,755,756 걸음 (봄: 7,016,217,064 걸음 / 가을: 5,526,538,692 걸음) → 지구 250바퀴 거리
- **기부액** 1억 5천만원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한 발걸음이 큰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내년 캠페인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걸으며, 건강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풍당당 6.5km 걷기대회,
건강과 나눔이 만난 하루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이혜영 건강운동관리사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준비운동 후 가을비가 갠 산책로를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남짓의 짧은 코스였지만, 오르막 내리막을 걸으며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아 건강과 교류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풍당당
6.5km 걷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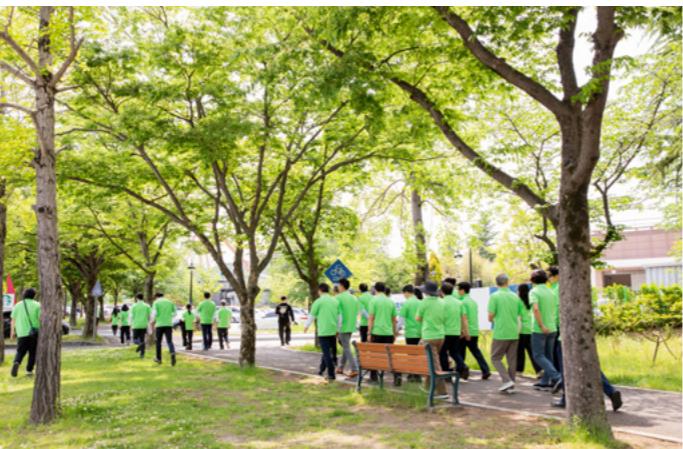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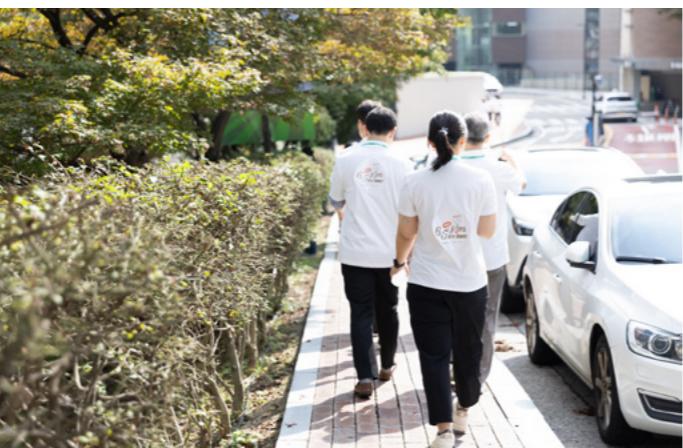
공개강좌: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

걷기 후 열린 공개강좌에서는 “당뇨병 낙인,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를 주제로 환자, 가족,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당뇨병으로 겪는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 공유하고, 이를 극복한 실제 경험과 접근법 소개하는 등 진솔한 공감과 지지로 따뜻한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함께 만든 특별한 자리

이번 걷기대회와 공개강좌는 단순한 건강 캠페인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키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걸음이 쌓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말처럼, 본 재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한 길을 걸으며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뇨병 진단 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장학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건강 관리와 학업·진로를 병행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돋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장학생들은 학비·생활비 지원, 치료 관련 장비 구매, 자기계발 기회 등 필요한 곳에 장학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젊은 당뇨인들이 미래의 리더이자 희망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은, 그들의 가능성과 도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2025년 꿈 장학생 (50명)

총 7500만원

1인 150만원×50명

강미서	김서진	박제하	양시준	이현주
고명진	김시은	박종현	양지현	임승연
고은별	김정혁	박준서	오혜린	임아진
구본철	김준우	박준한	유지훈	정다혜
김기단	김지율	박진주	유태희	조지윤
김대우	김혜수	백건우	이근석	조혜련
김동현	남광륜	백종혁	이성민	최수영
김민서	류근탁	소은서	이은별	최승연
김민서	민다희	신광섭	이지영	최하은
김서연	박윤경	신상훈	이진영	한효리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꿈 장학생 인터뷰

2025년 꿈 장학생(50명)

강미서

어린 시절 1형당뇨병 진단 후 방황했지만,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회복하며, 꿈 장학금을 통해 인슐린 펌프로 자기 관리와 삶의 자신감을 키우고자 합니다.

구본철

장학금으로 치료와 혈당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취업하여 꿈을 이루고 당뇨인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김동현

꿈 장학금을 받아 당뇨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공인회계사 시험 교재, 강의, 독서실 비용 등 학업 준비에 집중하고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김서연

경제적 부담으로 흔들리던 당뇨·비만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꾸준한 회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의 밀거름으로 장학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김정혁

혈당 관리와 건강을 지키고, 음향·영상 외부 강의와 장비 구입하여 꿈을 향한 첫걸음을 떼고 싶습니다. 꿈 장학금이 제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고명진

꿈 장학금으로 당뇨병과 우울증 치료를 이어가며 건강을 지키고, 네일미용학원 꿈을 이루어 당뇨인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기단

경제적 부담으로 미뤄온 연속혈당측정기와 맞춤형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컨트롤하며 당뇨병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김민서

꿈 장학금으로 당뇨병 치료와 학업에 집중하며, 꿈을 향한 희망을 지키고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서진

꿈 장학금을 통해 1형당뇨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음악과 학습에 온전하게 집중해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김준우

인슐린과 소모품을 비용으로 사용하여 부모님의 고생을 덜고, 힘들었던 당뇨병과 맞서며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고은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뤄둔 혈당 관리를 꿈 장학금으로 실현하며, 제 삶을 지키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주는 힘을 얻고 싶습니다.

김대우

꿈 장학금을 받아 장기간 부담된 당뇨병 치료비를 해결하고, 혈당 관리를 지속하며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과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민서

경제적 부담으로 막막한 학업과 당뇨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꿈 장학금은 저에게 꿈과 희망을 이어주는 소중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김시은

멀리에 있는 병원과 학원으로의 이동, 진료비 부담을 덜고, 꿈꾸는 3D그래픽 디자이너로 성장할 희망과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김지율

꿈 장학금으로 1형당뇨 치료비와 의료 소모품 구입, 교재와 온라인 강좌 수강 등 학업·자기계발에 투자해 건강과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김혜수

출산 후 신생아 검진과 임신·출산 관련 치료, 1형당뇨병 관리에 꿈 장학금을 사용하여 아이와 저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지키고 싶습니다.

민다희

당뇨병과 구강 건강 전문 지식을 쌓고, 관련 서적 구입과 세미나 참여로 교육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박종현

당뇨로 흔들렸던 삶, 다시 음악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장학금으로 건강을 되찾아 제 연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박진주

러닝을 통해 다시 건강한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운동 장비와 대회 참가에 도전하며, 자기관리의 여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소은서

당뇨와 화상 치료비로 쓰며, 안정된 건강과 학업 재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양시준

등록금, 전공서적, 치료비 부담 속에서도 학업과 당뇨 관리를 포기하지 않고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남광륜

꿈 장학금을 취업 준비 교재와 강의 수강에 사용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당뇨병 관리와 미래 준비에 힘을 얻고 싶습니다.

박윤경

당뇨와 희귀질환을 겪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과 의학을 배우며, 마음과 몸 모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준서

당뇨로 멈췄던 제 삶은 '돌는 일'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장학금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익혀, 제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겠습니다.

백건우

당뇨를 관리하며 배운 끈기와 집중력으로 센서 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광섭

환자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꿈 장학금은 학업과 건강을 지키며 꿈을 키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지현

매일 반복되는 당뇨 관리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힘으로 병원비와 소모품 구입에 장학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류근탁

인슐린, 혈당 측정기 소모품, 병원 진료비 등 치료비와 학업·자격증 준비에 사용해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박제하

40kg 감량의 노력처럼, 이번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장학금으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건강한 성장의 길을 걷겠습니다.

박준환

병이 아닌 꿈을 관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장학금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백종혁

기숙사비와 치료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은 저에게 '생활의 숨통'이자 꿈을 이어갈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신상훈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쌓아온 노력에 날개를 달고, 다양한 운동으로 건강과 자기계발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오혜린

저는 당뇨인으로서 건강빵을 연구하고 만들어, 같은 질환 환우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지훈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당뇨를 관리하며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장학금은 치료비와 학업역량 강화에 쓰고 싶습니다.

이성민

졸업작품과 자격증 취득 준비에 활용하여 학업을 마무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진영

장학금으로 대학원 학비와 자격증 취득에 투자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온전히 몰입하고 싶습니다.

임아진

장학금을 받아 그동안 미뤄온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떠나 삶의 활력과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혜련

장학금을 통해 건강과 학업을 지키고, 훗날 당뇨 청년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최하은

안정적 건강관리와 자기계발에 투자해 당뇨를 가진 청년으로서 당당히 꿈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유태희

당뇨로 힘든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직장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장학금으로 치료와 관리에 도움받아 더 안정된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은별

장학금으로 드로잉 장비와 수업에 투자해, 당뇨인의 삶과 회복을 담은 웹툰을 연재하고 싶습니다.

이현주

장학금으로 인슐린 펌프와 소모품을 구입해 안정적 혈당을 유지하며 연구에 몰입하고, 후배 환우에게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다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애견간식 창업 꿈을 향한 첫걸음으로 장학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최수영

아버지 전립선암과 할아버지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가족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습니다.

한효리

안정적 건강관리와 자기계발에 투자해 당뇨를 가진 간호사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근석

당뇨 관리와 체중 감량을 위해 장학금을 센서·인슐린 구입과 식단·운동에 투자해 꾸준히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지영

꿈 장학금을 통해 제과제빵 전문성을 키워 당뇨 환자와 일반인 모두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빵을 만드는 데 쓰고 싶습니다.

임승연

시험 기간만 사용하던 혈당측정기를 자유롭게 착용해, 음식 제한을 줄이고 운동과 건강을 지키는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지윤

교대근무와 간병으로 악해진 체력과 면역력 회복, 건강한 식단과 운동에 투자해 꾸준히 당뇨를 관리하고 싶습니다.

최승연

청소년기에 진단받아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이 큰 저의 치료를 위해, 장학금을 온전히 보태고 싶습니다.



당뇨병을 넘어, 꿈을 향해: 꿈 장학생 수기 중에서

당뇨병환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 장학금을 통해 나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내 삶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당뇨병환자와 경험을 나누고 우리가 당뇨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수상명단

대상	김성훈	동상	손우정
금상	박의진	동상	정윤지
은상	방연주	동상	최정훈
은상	이혜린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대상 수상작 (김성훈)



당뇨병 환자에게
찾아온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당뇨병과 함께한 15년, 그 시간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잦은 결석과 주사 치료로 오해와 따돌림을 겪었고, 저혈당 걱정으로 취미와 활동도 제한되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턱에서도 '당뇨병 환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제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꿈 장학금'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꿈이던 사진을 다시 시작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쥐고 나서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풍경과 고양이, 그리고 사람의 미소를 찍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한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금상 수상작 (박의진)

중학교 2학년, 뜻밖의 '1형당뇨병' 진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사와 혈당 체크의 반복, 친구들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당뇨는 제게 부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당뇨인을 위한 꿈 장학금'을 만나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건강이 악화되던 시기, 장학금은 "쉬어도 괜찮다"는 여유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몸을 회복하고, 평생 꿈꾸던 **첫 해외여행**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과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게 '당뇨도 관리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뇨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인도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혈당 관리가 가능한 여행 상품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 장학금은 제게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삶을 바꾸는 용기와 방향을 준 기회**였습니다.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은상 수상작 (방연주)

아홉 살, 1형당뇨병 진단은 세상을 느끼기엔 너무 이른 통보였다. 매일 주사를 맞고, 화장실에서 몰래 혈당을 재던 아이는 "정상과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병을 숨기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도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끈기로 대학 진학과 사회생활을 이뤄냈다. 회의 중 울리는 혈당 알람을 조용히 끄며 남들과 같은 속도로 걷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가 같은 병을 가진 이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

스물아홉에 만난 **'꿈 장학금'은 내 지난 여정에 건네진 박수였다**.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내 삶이 의미 있었다는 따뜻한 인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병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내 목표는 단 하나, **어린 당뇨 환자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 아홉 살의 절망은 끝내 가능성의 이야기로 다시 쓰였다.



숨기던 아이에서,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동상 수상작 (손우정)

세 살 무렵 소아당뇨를 진단받은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은 놀이터보다 익숙했고, 저혈당 쇼크와 따돌림은 어린 날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은 제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처음 사용하던 날, 불안 대신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 희망은 2023년, 예상치 못한 임신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매일 수십 단위의 인슐린을 맞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품었고, 결국 4.4kg의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 후 '꿈 장학금'은 또 한 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치료비를 넘어, 삶을 다독이는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뇨는 평생의 동반자이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병과 함께,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꿈을 잊는 장학금,
다시 달리는
나의 발걸음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동상 수상작 (정윤지)

"나의 꿈은 무엇일까?" 14년간 당뇨와 함께 살아오며 늘 던진 질문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혈당 관리와 학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지친 나날 속에서도 간호학과 입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2학년, 생활비와 혈당 관리 부담에 학업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만난 **꿈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멈춰있던 나의 꿈을 다시 이어주는 기회였습니다**. 교수님과 주치의의 응원과 함께 간절히 신청한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과대표로 활동하며, 남은 학기와 미래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 장학금이 준 힘으로, 언젠가 나와 같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는 간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당뇨는 여전히 나의 동반자이지만,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과 기회가 함께 있습니다.



당뇨와
함께 키운
나의 꿈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은상 수상작 (이혜린)

23세, 허리디스크로 입원 중 혈당수치 400이라는 결과와 함께 찾아온 갑작스러운 당뇨 진단. 약물 부작용과 끝없는 구토 속에 치료를 포기했던 나는 '건강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생활비에 밀려 건강을 미뤘던 그때,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을 알게 되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내가 어떻게 나를 돌볼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치료를 지속하게 만드는 희망의 장치이자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었다.

이제는 혈당을 기록하고 식사와 운동습관을 조절하며 하루하루를 다시 써 내려간다. 이 글이, 아직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꿈 장학생 수기공모전 동상 수상작 (최정훈)

12살, 처음 '1형당뇨' 진단을 받던 날 세상은 낯설고 무서운 곳이 되었다.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 저혈당과 고혈당의 싸움은 어린 나에게 큰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호기심과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당뇨와 면역학, 자가면역질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당뇨병 관련 서적을 찾아보던 어린이였던 나는 과학에 흥미를 느껴 과학기술원에 입학하여 연구자의 길을 선택했다. 여전히 매일 혈당을 확인하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의 꿈을 향한 준비 과정임을 안다. **'꿈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내가 견는 길이 가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전국의 꿈 장학생 청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용기와 위로로 다가왔다. 이제 나는 **당뇨병을 두려움이 아닌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며**, 자가면역질환 연구에 매진한다. 내 연구가 언젠가 또 다른 12살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자로 성장하고자 한다.

당뇨병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활이 함께 이어지는 만성질환입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등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스스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은 카카오임팩트의 지원으로 디지털 사각 지대에 있는 2형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Dexcom G7)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돋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에게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여,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는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5~2027년 (3년)

사업예산: 1,000,000,000원

사업대상: 당뇨병 취약 계층 환자



당뇨병관리가 어려우신 환자분들을 위해
**당뇨병학연구재단이
'임팩트있게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주최 (재)당뇨병학연구재단 kakao!impact kakaohealthcare

운영지원 BAYADA®
Home Health Care

후원자 인터뷰

Q. 많은 후원 기관 중 (재)당뇨병학연구재단에 후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체가 대한당뇨병학회입니다. 학회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당뇨병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많은 연구자와 환자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단은 학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틀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학회의 미래와 연구자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재단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당뇨병학 발전과 환자 지원이라는 의미 있는 목적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Q. 기부하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길 바라시나요?

기부한 후원금은 무엇보다 학회의 발전과 연구자 지원, 환자 교육 등 재단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판단을 신뢰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결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당뇨병 환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Q. 향후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발전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재단이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과 성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면서,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과 학회 활동 지원, 환자 중심 사업 확대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부자와 후원자들이 참여한 만큼 그 뜻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재단의 모든 활동이 우리나라 당뇨병학 발전과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환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에, 그 보답으로 제 기부금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의 미래와 연구자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재단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차봉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교육, 연구, 진료를 병행하며,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 재직 중입니다. 학문적 활동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당뇨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연구와 후원이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Q. 많은 후원 기관 중 (재)당뇨병학연구재단에 후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만난 당뇨병 환자들로부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용기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늘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마운 마음을 환자와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단의 학술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당뇨병 관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비록 작은 규모지만 제 기부가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기부하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시길 원하시나요?

저는 후원금이 당뇨병 환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환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에, 그 보답으로 제 기부금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나 당뇨병 관리 기술 혁신을 위한 기초 및 임상 연구에 투자되기를 바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의료 지원 사업에도 활용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후원금이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합니다.

Q. 향후,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발전을 위해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재단이 앞으로도 당뇨병 연구와 환자 지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연구를 강화하여, 개인 맞춤형 당뇨병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데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일반 대중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당뇨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전문의로서 재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당뇨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과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약 15년간 근무해 온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주요 전공 분야는 당뇨병이며, 임상 진료와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당뇨병 연구와 환자 지원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후원 기관 중 (재)당뇨병학연구재단에 후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료를 하며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오랜 시간 병을 앓으면서 다양한 합병증, 특히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뇨병 연구가 단순히 혈당 조절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에 후원을 통해 작은 보탬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Q. 기부하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시길 원하시나요?

저는 후원금이 당뇨병 치료와 관리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초 및 임상 연구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환자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에 활용되어,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과 환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향후,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발전을 위해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당뇨병은 개인 건강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문제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단이 국민에게 당뇨병의 위험성과 예방·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과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전문의로서 재단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며,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당뇨병 연구는 합병증을 예방해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의 이사장이자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당뇨병 연구와 환자 지원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후원 기관 중 (재)당뇨병학연구재단에 후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한당뇨병학회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특히 김신곤 초대 사회공헌이사님의 헌신과 열정을 가까이에서 보며 재단에 대한 신뢰와 후원 동기가 강하게 생겼습니다. 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이 당뇨병 연구와 환자 지원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후원 결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기부하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상대적으로 후원이 적을 수 있는 특수한 프로젝트에 제 후원이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뇨병 연구와 지원을 위한 한반도 트윈 프로젝트와 우크라이나 당뇨인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흔치 않은 분야로, 외부 지원이 부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했습니다.

Q. 향후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발전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재단이 당뇨병 연구와 학술 활동 지원의 견고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길 바랍니다. 중심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외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역량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재단과 아시아 최고의 당뇨병 전문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뇨병 극복의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재단의 기부에 동참해

'당뇨병 극복의 날'을 앞당기는 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박석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광명성애병원 내분비내과장으로 20년간 근무하며 보험법제위원회와 사회공헌위원회 활동에 참여, 임상과 학회를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진료와 환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서 당뇨병 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박샘내과의원 원장으로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후원 기관 중 (재)당뇨병학연구재단에 후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역사회에서 저희 의료기관이 당뇨병 전문 치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저 역시 당뇨병 진료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와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학회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술 자원을 통해 저 자신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후원은, 당뇨병 진료 의사로서 제가 오늘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학회에 대한 작은 감사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부하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나요?

당뇨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으며, 보다 나은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번 기부가 이러한 길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와 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Q. 향후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발전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기부를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를 통해 저처럼 성장하고, 환자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이 기부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와 임상의에게 영감을 주고,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힘입니다.**

윤석기

순천향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수련을 마친 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천안 엔도내과의원 원장으로,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고혈압, 지질대사질환 등 내분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며 지역사회에서 환자 중심의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 이승열

이승열 작가는 광고와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따스함과 여유, 그리고 일상의 온기를 담은 그림으로 활동합니다. 작가의 일러스트는 보는 이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삶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대표작업 농협 TV CF '같이의 가치'
삼성그룹 신문 전면광고

SONY, 유니버설 뮤직,
워너브러더스, EMI 등과
음반작업

공동저서 '언제나 재즈처럼'

instagram @sing_yol_art



이승열 작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위로

올해 재단 달력은 '함께하는 일상, 따뜻한 위로'를 주제로 일러스트레이터 이승열 작가의 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고와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그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온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작업 역시 그가 평소 추구해 온 방향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작가는 미술을 가르치는 아이들 중 당뇨병을 가진 한 아이와의 경험을 계기로, 이번 달력에 '다양성과 일상'의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누군가는 약을 챙기고 생활을 조절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루가 특별히 다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 다양한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장면을 통해, 당뇨병 환자와 가족 또한 우리 곁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는 열 두 달의 그림이 각각 분리되어 보이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도록 색감과 구도, 분위기를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강한 대비보다는 오래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색을 선택했고, 발견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작은 강아지 캐릭터도 곳곳에 숨겨두었어요.

이승열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그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건네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해도, 그림이 전할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감정과 경험을 담은 작업을 이어가며, 그림이 평면에서 입체로 확장되는 새로운 표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달력은 그저 날짜를 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는 조용한 응원의 말에 가깝습니다. 그림 속 장면들이 보는 이의 하루에도 작은 온기를 더해주길 바랍니다.



함께한 변화

10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접수기간 2025년 3월 1일~31일

공모자격 당뇨병환자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내용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캐치프레이즈 공모

심사기준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메시지로
독창성, 전달성, 간결성을 고려하여 선정

※ 공모전 수상작은 일러스트와 함께 탁상달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자물쇠,
당신의 습관이 열쇠가 됩니다.

대상 윤조영

혈당 브레이크 밟고 안전 운전해요

금상 김민수

당뇨병 편견 Esc! 건강한 습관
Enter! 내 몸을 새로고침!

은상 이상윤

당뇨병 관리,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은상 양성필

응모작수
2,780건

대상 1명 상금 50만원
금상 1명 상금 40만원
은상 2명 상금 각 30만원

동상 3명 상금 각 20만원
입선 5명 상금 각 10만원

(고)당도 음식은 (무)조건 (줄)여요.
우리, 고무줄해요~

동상 장현주

같이하는 당뇨병 관리,
가치있는 건강한 삶

동상 김인수

First 조기검진, Best 생활습관

동상 김은숙

당뇨병, 관심으로 줄이고
건강으로 채우자!

입선 한대희

공복혈당 100 이하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입선 조현

당뇨병, 모르면 '당'황, 알면 '당'당!

은상 이선근

당뇨병 관리, 내 몸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입선 안서현

당뇨병? 동승은 해도, 운전은 내가!

입선 김민철

재단의 마스코트 '당당이'를 소개합니다!

당뇨와 함께 당당하게!

당당이는 대한당뇨병학회와 (재)당뇨병학연구재단의 마스코트로, 당뇨병 환자와 가족, 일반 국민 모두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친구입니다.

당당이는 환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당뇨병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탄생했습니다.



재단 마스코트 당당이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당당이의 활동은 매우 활발합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당뇨 관리 팁, 정보,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학술대회와 캠페인, 기념행사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참여자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당당이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당뇨인과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앞으로도 당당이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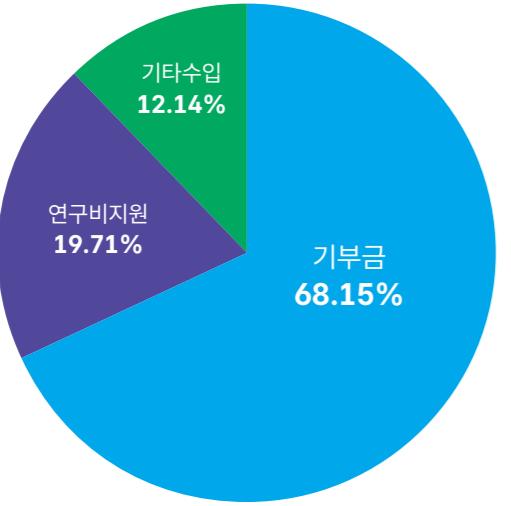
여러분도 당당이와 함께 당뇨와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기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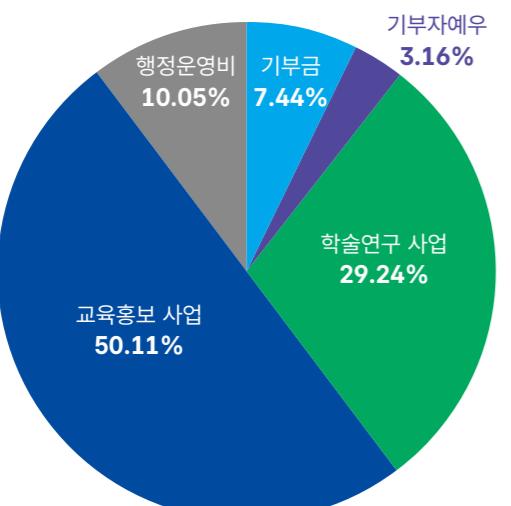
2025년 (재)당뇨병학연구재단 결산보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2월 예산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재정보고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연도별 기부금

2023년 211,804,000

2024년 397,087,000

2025년 725,909,000

기부자 명단

(2025년 10월 기준)

단체

1억원 이상

동아쏘시오그룹

5백만원이상

호프데이 티켓, 사일런스 옥션 기부금

1십만원이상

(주)아티장술루션코리아

연세조홍근내과

1천만원이상

한독

한국릴리

한국키스톤심포지아조직위원회

한국화이자제약(주)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아이쿱

1백만원이상

(주)엘카라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김형진내과의원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1십만원이상

닥터다이어리 부울경클럽 부경다모

대구엔도내과

1만원이상

아뜰리에보네르

개인

1천만원이상

안유배

김종화

유성훈

홍의실

김운정

신미리

장병용

Norlaila Binti Abu Samah

김상수

오춘식

김지윤

이경애

황유철

김원

신은총

장준영

Piyush Babele

김신곤

우정택

김진화

이문규

김원준

신인규

전숙

Putra Rizki

김인주

윤건호

김철희

이승은

1만원 이상

김은경

안말정

전재한

Qulsoom Naz

박경수

윤태승

김하일

이승환

강병선

김준기

안현지

정경미

Safikur Rahman

박석오

이경일

김현성

이양선

강석윤

김준영

염기섭

정수진

Senthil Kumar Subramani

서교일

이원영

김현진

이우제

강신애

김지수

염선경

정혜민

SUPRIYA CHAUHAN

윤석기

이지현

김현창

이은정

강애리

김현애

염선영

정혜승

Tovuusuren Baasankhuu

이현철

장학철

김현희

이지선

고운현

김현자

염제오

조영은

Vikas Kumar

차봉수

전석길

김혜순

이진우

고정은

김혜수

우창운

조운영

Zelviana putriPiyush Babele

허승우

정윤석

김희경

이해민

고현정

김희영

원동욱

조운정

Putra Rizki

한정훈

정인경

남수민

이희우

곽성용

남궁준

유민우

주상현

Qulsoom Naz

정준희

노정현

임은하

곽수현

남정욱

유혜민

주혜경

Safikur Rahman

정희경

류동렬

임정현

구교영

노명진

윤수진

진상만

Senthil Kumar Subramani

원규장

진홍일

류혜진

장선호

권덕희

노민영

이난영

차선아

SUPRIYA CHAUHAN

한경아

최성희

목지오

장은서

권슬기

노연희

이명숙

최노아

Tovuusuren Baasankhuu

홍성관

문민경

문민경

전자영

권오빈

박상익

이슬이

최덕현

기부참여 방법

동아 ST는

인류건강의 **MOST**를 지향합니다.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개선으로
모든 환자가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약을 개발합니다.

MOST

WORLD

MUST의 원칙을 지켜 나갑니다.
난치·희귀질환 치료용 신약 개발로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약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전문의약품 기업 | 동아ST

우리의 마음이 모여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금부문 (택1)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

내분비학 미래 세대 양성사업

당뇨병 연구, 예방 프로젝트 사업

당뇨인 지원, 대국민 공익사업

기부금 납입 (택1)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약정방법 (택1)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접수

기부약정서 작성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접수

이메일 diabetes@kams.or.kr

팩스 02-714-9084

우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4호

(재)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금 담당자

온라인 약정

재단홈페이지



기부하기 버튼 클릭(온라인 기부)



<https://diabetes.or.kr/foundation/>

세제혜택

개인 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

세제공제율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법인 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인기부금) × 10%

세제공제율 손금산입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 약정서

기부자 정보

이름 (단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여부 <input type="checkbox"/> 회원 <input type="checkbox"/> 비회원		
추천인	기부금 영수증 신청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해당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름과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기부 정보

모금부문	<input type="checkbox"/>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	<input type="checkbox"/> 내분비학 미래 세대 양성사업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연구, 예방 프로젝트 사업	<input type="checkbox"/> 당뇨인 지원, 대국민 공익사업
기부주기	<input type="checkbox"/> 월 정기기부 <input type="checkbox"/> 일시기부	기부금액 원

기부동기 및 요청사항

납부 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예금주 (재)당뇨병학연구재단	계좌번호 국민은행 055201-04-227107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input type="checkbox"/> 신용/체크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MM / YY	카드주명	

* 카드결제 및 정기출금일은 매월 5일입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정해둔 실시간이체(CMS) 출금한도는 1일 1계좌당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 이상의 기부 참여는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및 예우품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기부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인)

기부자 예우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기부 누적액	1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감사메일/소식지/홈페이지게재	●	●	●	●	●	●	●	●	●
달력 발송(매년)		●	●	●	●	●	●	●	●
감사장		●	●	●	●	●	●	●	●
학회행사 등록비 1년 무료			●	●	●	●	●	●	●
기부자 명판/소식지 개별 인터뷰			●	●	●	●	●	●	●
명판 전달식			●	●	●	●	●	●	●
사용처에 기부자 이름 명시 (연구비, 장학금, 기타프로젝트)			●	●	●	●	●	●	●
춘계 이사급 예우					●	●	●	●	●
ICDM 이사급 예우					●	●	●	●	●
보도자료 배포								●	

일반인

* 본인
**본인+직계가족

기부 누적액	1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감사메일/소식지/홈페이지게재	●	●	●	●	●	●	●	●	●
달력 발송(매년)		●	●	●	●	●	●	●	●
감사장		●	●	●	●	●	●	●	●
연례 '오찬' 초청(1회)			●	●	●	●	●	●	●
기부자 명판/소식지 개별 인터뷰			●	●	●	●	●	●	●
명판 전달식			●	●	●	●	●	●	●
사용처에 기부자 이름 명시 (연구비, 장학금, 기타프로젝트)			●	●	●	●	●	●	●
비학술행사 VIP초청/연례 '만찬' 초청					●	●	●	●	●
당뇨병/내분비진료 VIP관리					●*	●**			
보도자료 배포								●	

단체

* 대한당뇨병학회
**ICDM

기부 누적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감사메일/소식지/홈페이지게재	●	●	●	●	●	●	●
달력 발송(매년)	●	●	●	●	●	●	●
감사장	●	●	●	●	●	●	●
연례 '오찬' 초청(1회)		●	●	●	●	●	●
기부자 명판/소식지 개별 인터뷰	●	●	●	●	●	●	●
명판 전달식		●	●	●	●	●	●
사용처에 기부자 이름 명시 (연구비, 장학금, 기타프로젝트)	●	●	●	●	●	●	●
비학술행사 VIP초청/연례 '만찬' 초청			●	●	●	●	●
홍보부스 제공			●*	●**			
보도자료 배포							●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4호

E-mail diabetes@kams.or.kr Tel 02-714-9081 Fax 02-714-9084

발행인 차봉수

편집위원 박석오, 최경애, 박유정, 김정희